



베이징올림픽 D-65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대지진 피해 정부 책임론 고조
성난民心 속 올림픽 불씨 살리기

쓰촨(四川) 대지진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인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8월 8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중국 정부는 올림픽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 지진 참상을 지켜본 인민들의 첫 불만은 '수수강 학교'에서 터져 나왔다. 이번 대지진으로 붕괴된 원촨(汶川) 내 교실 7천여 실 가운데 20% 정도만 국가기준에 맞춰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멘주(綿竹)시 푸신(富新) 제2초등학교의 경우 철근은커녕 속 빈 벽돌로만 지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경악했다. 멘주시 부모들이 상급기관인 더양(德陽)시 당 위원회로 몰려가려고 하자 멘주시 장더화(蔣德華) 당서기가 땅바닥에 꿇어앉아 이들을 만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구호물자가 빠져들리는 현장을 적발한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보다 결정적인 사실은 은폐다. 민간연구조직인 지구물리학회 천체에추위원회 고문인 천이원(陳一文) 박사는 지난달 29일 "대지진 발생 직전 쓰촨성 아바주(州) 원 환원 내에서 언덕 붕괴 사고가 발생해 주민 몇 명이 죽거나 다쳐, 현 정부는 지질 변동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경고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천 박사는 이어 "이웃 간수(甘肅)성의 지진연구원도 4월 '간쑤성 랴저우(蘭州) 이남 지역과쓰촨 서부, 칭하이(靑海)성 동부 지역에 리히터 규모 7.2 이상의 대형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 두 문건을 천 박사가 모두 정리해 국가지진국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지진국이 지진발생 전 어떤 지진 경고 보고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거짓이며, 미리 대처했다면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의외의 역풍에 당황한 중국 정부는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다. 올림픽 열기를 피할려 인민들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우선 대만 카드가 동원됐다. 지난 5월26일부터 27일간 우보송(吳伯雄) 대만 국민당 주석이 대륙을 방문한 것과 때를 맞춘 행사다. 대만 올림픽 참관단이 27일부터 이틀간 올림픽 시설을 돌아본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 언론들은 이들의 일정을 상세히 전하면서 '한 핏줄, 한 마음, 하나의 올림픽'이란 구호를 선포했다.

지진과 성화봉송을 연계시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지진 피해지역인 멘양시 체육국의 루웨이취안(盧貴全) 부국장은 "지진복구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들 가운데 몇몇을 성화 봉송 주자로 내세울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후이(安徽) 성은 지진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헌혈한 자오진사(趙金霞)란 주민을 새 성화봉송 주자로 선출하기도 했다.

일간지 '화시(華西)도시보'는 최근 "한 성화봉송 주자가 영광스런 주자의 자격을 지진영웅들에게 넘기겠다고 밝혔다"는 미담도 전했다. 지진과 성화를 연계시킴으로써 참화 속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대지진이 던진 그들은 올림픽으로 가리기엔 너무 짙고 넓다. 올림픽 분위기로 그 충격을 덮을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jkrccm@paran.com



광주일고 정성철



덕수고 성영훈



경기고 오지환



서울고 안치홍

15회 무등기 고교야구 D-5

광주일고 정성철-덕수 성영훈

마운드 자존심 대결 큰 관심

오지환·안치홍도 맹활약 기대

'내일의 스타, 그들을 만나고 싶다' 한국 야구를 짊어지고 갈 '고교 특급' 선수들이 오는 9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개막하는 광주일보사 주최 제15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 대회 출전을 위해 광주를 찾는다. 덩달아 '내일의 별'들을 찾기 위한 프로야구 스카우터들도 바빠졌다.

2009년도 프로야구 신인 1차지명명은 5일 마감된다. 내년부터는 전면드래프트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구권 1차 지명은 올해가 마지막이 된다. 4일 지명권 8자리 중 3자리는 이미 주인이 결정됐다. 지난 4월1일 일찌감치 계약금 5억 5천만에 두산행을 결정한 '초특급 투수' 성영훈(덕수고), 지난 28일 2억8천에 LG 유니폼을 입기로 한 '대형 유격수' 오지환(경기고), 1일 삼성 지명을 받은 '만능 내야수' 김상수(경북고)가 영광의 주인공이다.

올해 고교야구 투·타의 초특급 선수로 꼽히는 성영훈과 오지환은 팀 승리를 위해 광주에 온다.

KIA행이 확실시 되고 있는 광주일고의 '포커 페이스' 투수 정성철과 우리 히어로즈의 후보 '0순위' 휘문고 좌완 허준혁도 무등기 쟁탈에 가세한다.

야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선수는 올해 황금사자기 최우수 선수 정성철과 대통령배 최우수 선수 성영훈이다. 광주일고의 정성철은 황금사자기 대회 3경기에 등판해 15이닝 동안 22탈삼진, '0'의 방어율을 단 3개의 안타만 내주며 팀 우승의 주역이 됐다. 1·2학년 때 부상으로 공을 던지지 못했던 성영훈은 자신의 전국대회 첫 등판에서 최우수 선수의 영예를 안으며 '깜짝 스타'가 됐다.

우완정통파인 정성철은 직구 속도가 140km 초반대지만 제구력과 슬라이더가 좋다. 한결같은 표정으로 노련하게 경기를 풀어나가 '포커 페이스'라는 별명을 얻은 정성철은 KIA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어 고향팀 입단이라는 꿈을 달성하게 될 전망이다.

성영훈은 150cm 중반의 빠른 직구와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앞세워 특급 투수로 평가받고 있다. 메이저리그의 러브

콜을 받기도 했던 성영훈은 고교 선수 중 가장 먼저 두산과 프로 입단 계약을 결정지었다.

모교인 덕수고의 황금사자기 준우승을 이끈 성영훈은 대통령배에서는 5경기에 모두 등판해 24와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0'으로 괴물투를 선보이며 3승을 챙겨 최우수 선수가 됐다. 성영훈의 빛나는 투구로 덕수고는 창단 28년 만에 대통령배 우승을 거머쥐었다.

마운드의 두 스타 선수는 이미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맞대결을 펼친 경력이 있다. 덕수고 선발로 나온 성영훈은 9이닝 7피안타 11탈삼진 3실점의 호투했지만 3개의 안타밖에 뽑아내지 못한 팀 타선 탓에 패전 투수가 되면서 정성철에 완패했다. 이번 무등기 대회에서 광주일고와 덕수고가 선전한다면 4강에서 두 선수의 재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다.

낙차 큰 커브와 안정된 제구력으로 정성철과 팀의 에이스로 꼽히는 광주일고의 장민제는 각이 큰 커브와 제구력으로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다. 휘문고의 좌완투수 허준혁도 황금사자기대회에서 전주고를 상대로 9와 3분의2이닝 동안 20삼진을 뺏으며 주목받았다.

LG의 새 식구가 된 오지환과 서울고의 안치홍은 '마운드 강세'속에서 돋보이는 타자다. 186cm의 키에 80kg의 건장한 체구를 지닌 유격수 오지환은 우투좌타로 타격과 수비 모두 수준급이다.

안치홍은 지난해 대통령배 결승에서 2개의 홈런을 때렸다. 안정된 타격과 수비로 오지환과 더불어 최고의 유격수로 꼽히는 안치홍은 도루 능력과 주루 플레이도 수준급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 3파전

김성태·조영기·홍준표씨 후보 등록

지난 4월 김정길 회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한태권도협회장에 김성태(60) 부산협회장과 조영기(70) 전남협회장, 홍준표(54)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상 후보등록순)가 도전장을 던졌다. 대한태권도협회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3일 이들 세 명이 차기 협회장 후보등록

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성태·조영기 후보가 차례로 각각 부산협회와 전남협회의 전무이사로서 등록했고, 홍준표 후보는 마지막으로 김영근 대구태권도협회장을 통해 등록을 마쳤다. 주점으로 조영기 후보가 1번, 김성태가 후보가 2번, 홍준표 후보가 3번을 배정받았

다. 김성태 부산협회장과 조영기 전남협회장은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겸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 이후 구천서·김정길 씨 등 정치인이 계속 협회장을 맡아 이제는 태권도인이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할 때라며 출마 의사를 밝혀 왔다. 태권도계 일부 중진들의 추대를 받은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근 산적한 정치 현안 때문에 출마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결국 후보등록을 했다. 차기 회장을 뽑을 임시 대의원총회는 11일 오후 2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4층 아테네홀에서 열린다. 4일(수) ▲메이저리그 <토론토: 뉴욕Y>(07:55·Xports) ▲베이징올림픽 세계남자배구 최종예선 <대한민국: 호주>(13:30·KBSN S-SPORTS) ▲단오장사씨름대회(14:10·KBS1) ▲프로야구 <LG: 삼성>(18:20·X-ports), <SK: 우리>(18:20·KBSN S-SPORTS), <한화: KIA>(18:00·SBS스포츠), <롯데: 두산>(18:30·MBC ESPN)

HYUNDAI 투자의 빛이 되겠습니다!
수완 신도시 현진에버빌
단지내 상가 특별 분양!
1단지 672세대 2단지 509세대
현진에버빌의 품격과 미래가치
이제 단지내 상가로 이어집니다.
은행이자대출 최고 40% 지원!
역시! 단지내상가도 현진에버빌입니다!
1. 100M 이내 초·중·고교 초근거리 인접
2. 수완 신도시의 미래가치와 프리미엄
3. 대단지 아파트 단지내 독점적 상권
4. 풍부한 배후 대단위 주거단지 입지
분양문의 062-361-8022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현진에버빌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地友 부동산컨설팅
본선동 남구청앞 슬퍼타운 상가 ☎ 062) 655-0063
011-9609-9500
◆ 믿음, 신뢰,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동산
◆ 광주·전남 전지역 정확한 권리 분석
◆ 10년간 경·공매 실전경험으로 철저한 수익성분석
◆ 투자자의 마음으로 고객을 상담하겠습니다.
※부동산 제테크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과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地友와 함께 직접 실무와 경험하는 자세가 제테크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남녀직원모집
대표 임근철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공매 분석사
·부동산 권리 분석사
·부동산 분양 상담사
·초담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수완 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토지매매
▶수완지구 333-1(1병의변경가능) 60㎡대
대포변 상입용지, 3병도로
주거용인원 720㎡ 3.3㎡당 600만원
▶수완지구 333-3 60㎡대 대포변 상입용지,
아파트밀집지 720㎡ 3.3㎡당 6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입용지 500㎡ 평당 190만
▶수완지구 35㎡ 대포변 버스정류장 앞
상입용지 820㎡ 평당 300만
▶광산구 수완동 35㎡ 대포변 자연녹지
당 1,762㎡ 4,231㎡ 평당 70만(분할가능)
▶광산구 신안동 대지 374㎡ 평당 30만원
주거지역 (건물있음)
▶광산구 신안동 관음굴대포변 지하철도역 앞
상입용지 대지 286㎡ 매가 2억 9,000만
노블메디칼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약국, 전자상,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병의원내과, 소아과, 인과, 피부과(이비인후과) 및 임대(중형수리당)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라마켓 임점확정
2층 파파코스 피자 임점확정
6~8층: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①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①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생계형, 음식, 호프, 고쳐구이 전문 컨설팅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 062-374-2860 · 010-9115-4467
기획·매뉴개발·매각상담·결정진단·인테리어
▶서구 매일동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1천2백만 월5십만
▶서구 생촌동 보증금 2천만 월1백2십만
▶서구 풍암동 보증금 5천만 월7십만
▶서구 치평동 297㎡ 보증금 3천만 월3백4십만
▶서구 미륵동 주차장 990㎡ 보증금 3천만 월1백4십만
▶광산구 흑석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1백5십만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북구 양산동 보증금 1억 월600만원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 월80만원
▶광산구 쌍암동 보증금 6천 월300만원
▶서구 금호동 보증금 1억 월300만원
▶서구 화정동 보증금 1,200 월60만원
※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매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
※생계형 신규영업 상담·개발비용 2천만원에서 10억까지 다양하게 매개 임대 수시 접수합니다.※